

합리성과 그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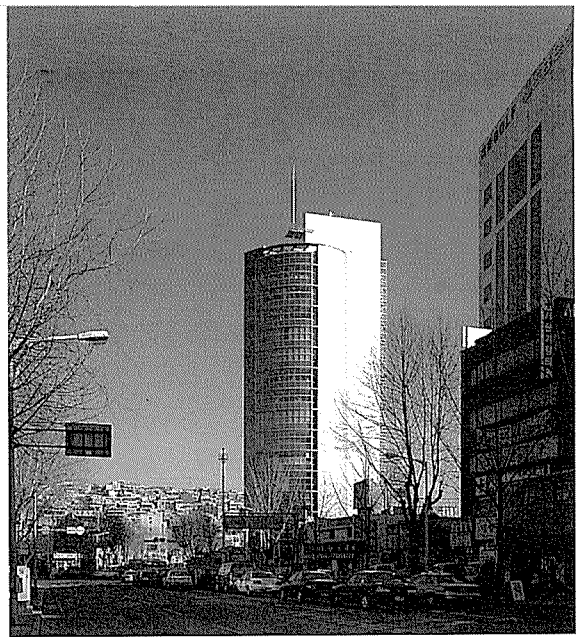
Rational Architecture and Beyond

제해성/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Je Hae-Sung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화동 사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사옥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상의하곤 했었다. 총무부서의 여직원이 손수 준비한 커피가 전직원에게 매일 아침 서비스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컵도 없었으니 그 커피는 격식을 갖춘 그야말로 훌륭한 한 잔의 커피였다. 이는 20여년 전의 일이었고 요즈음에는 상상도 못하는 직원에 대한 극진한 대접일 것이다. 당시에 필자가 정림건축에서 처음으로 건축실무를 익힐 때는 짙은 갈색 외장 타일의 5층 건물이었다고 근무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였다.

최근 필자가 정림건축을 다시 방문했을 때 사옥은 예나 다름없이 같은 장소에 서 있으나 우뚝 솟은 위용은 예전과 몹시 다르고 설계실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은 사뭇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북측으로 북악산과 낙산 그리고 대학로, 창덕궁, 경복궁을 굽어볼 수 있는 탁트인 전경은 답답한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듯한 시원함을 준다. 정림사옥은 지하6층 지상15층의 2,500여평의 건물로서 정림건축과 까치건축이 7층에서 15층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중이다. 지하에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실, 기계실 등이 있다.

대학로 입구에 위치한 정림건축사옥은 그 위치의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지나치는 모든 이에게 크게 부각되는 건축물이다. 대지의 서측은 도로가 40m로 확장될 예정이고 북측은 30m 도로, 서측은 11m 도로에, 남측으로 4m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 지역에는 오랫동안 5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정림건축사옥 신축시점에는 남측으로 우일빌딩, 북측으로 혜화전화국, 서측으로 청호컴퓨터사옥, 동서증권빌딩, 여전도회관 등의 15층 정도의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많은 중대형 건축물 중에서 정림건축사옥은 대학로 남북 교차로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조형성 면에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대학로가 확폭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설계자는 대지가 갖는 도시적 맥락을 반원형의 수직 매스로 매끄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건물내부에서는 북서 및 북측의 전망을 한껏 확보하고 건물외부에서는 교차로 건축물의 도시적 방향성을 원활하게 해결하였다. 남북 장방형의 대지형상과 북측도로 그리고 교차로 부분의 가각전제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의 수직 매스에 반원형을 첨가한 것이 정림건축의 기본적 매스(Mass)이다. 서측의 강렬한 일조를 피하면서도 북서측의 시원스러운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설계자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측의 강렬한 일조를 피하기 위하여 서남측에 코어를 배치하고 닫혀진 코어내의 계단실에서 남측의 전망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돋보이는 점이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휴식하는 동안에는 계단실은 고급 스카이라운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입면을 구성하는 외벽재료는 크게 유리, 알루미늄 시트, 외장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측 곡면에는 북측유리의 커튼월, 서측은 알루미늄 시트로 되어 있다. 코어와 장방형의 수직면에서 벽체 부분에는 대형 외장타일이 건식공법으로 붙혀져 있고 창부분에는 북측유리의 수평창과 알루미늄 시트의 창간 밴드가 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면 입면의 요소가 다양하다. 남서측을 보면 양측의 외장타일의 수직벽체 사이의 수평창이 돋보이고 북서측을 보면 그 수직벽체 사이에 반원형의 글래스 커튼월과 알루미늄 시트로 구성된 입면이 돋보인다.

정림사옥에서 디자인의 성패는 사실 북서측 입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의 초기 스케치 및 모형을 완성된 신축 건물과 비교해보면 처음설계와 결과물이 사뭇 다를 수 있다. 크게 다른 점은 초기 계획에는 유리와 알루미늄 시트 그리고 알루미늄 수평 루버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완성된 사옥은 다각형으로 변화되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입면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계획에서 돌출된 입면 레이어(Layer) 또는 가입면이 사라져 버렸다. 합리적인 건축생산과 공사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다면형의

말썽한 입면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정림사옥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건립되어 있어 어딘가 파격적인 디자인요소 또는 감동을 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항상 깨어 있지만도 않고 어떨 때는 취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한다. 인간은 말썽한 얼굴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복장을 바꾸어 가며 조그마한 변신을 이룬다. 정림사옥의 반원형 수직매스를 곡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열정적인 건축가라면 이를 끝까지 관찰시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 불가능해 보이거나 어려워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 이를 해결한 자는 성취감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감탄을 보내기 마련이다. 완전한 곡면과 덧붙여진 입면의 변화는 초기 모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끝까지 관찰 되었다면 더 많은 찬사와 감탄을 이끌어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원형크기는 접선으로 이루어진 다면형으로 처리하기에는 크기가 너무나 작다. 특히 대학로 주변에 많은 보행자를 고려하면 다면형의 형태는 완성되지 않은 조형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건축가들은 항상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번민하게 된다. 초기의 이상적인 창작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없이 자체 당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이 설계의 과정일 것이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시작한 건축설계는 계획설계(Schematic Design)에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과정에서 기술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단계에서 또 한번 삭제되고 시공과정에서도 다시 곤욕을 치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이 설계과정의 현실이지만 설계자는 설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고수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고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이를 이루어나갈 때 훌륭한 건축작품이 살아 남는 것이다. 정림사옥에서 고수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또한 무엇을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었던지를 곰곰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건축작품이 합리적이어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합리적인 구조, 기능은 건축물이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도 해결 못하면 수준 이하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합리성과 거리가 먼 건축작품은 부끄러운 작품이다. 충분히 합리적이면서도 합리성을 뛰어 넘는 용기, 기백, 열정이 필요하다. 정림사옥은 분명히 충분히 합리적이다. 또한 합리성을 뛰어 넘는 요소들이 코너의 처리, 내부공간의 처리 등에서 나타난다. 합리성의 문제를 식생활에 비유해 보자.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는 수준이라면 합리성의 바탕 위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합리성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여야 할 것인지를 건축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림사옥은 중규모의 건물이면서도 오피스빌딩이기 때문에 평면의 변화는 많지 않다. 주차동선과 보행동선은 대지의 동측 11m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북서측 코너는 독립된 보행출입구를 가진 임대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북서측 코너에서 지하로 직접 통하는 통로가 있고 그 주변에 공개공지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을 전제로 한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건물에 가리워져 있어 아쉬움이 남아 있다. 지상1층 동측 주출입구의 중앙에 위치한 기둥은 예전에는 금기시되어 오던 평면 해결 기법이지만 기존의 원칙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이후로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로버트 벤츄리의 필라델피아 길드 하우스도 출입구 중앙에 기둥이 놓여져 있다. 중앙 기둥은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합리적인 해결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강조하기 위한 강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이 곳의 색채는 정림사옥에서 가장 강한 톤의 채색이다. 로비는 좁지만 2개 층을 활용하여 시원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합리적으로 계획된 로비로 바닥과 전면벽을 제외한 벽면재료는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로 되어있다. 서양에서도 석고보드 위에 백색 수성페인트가 자주 사용되지만 상업업무공간의 경우에는 아트(Art Work)가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또는 예술작품과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내는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의 최정점에 맞춰 준공된 사옥이라 초기 구상에서 계획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사라진 것임에 틀림 없지만 이러한 아트(Art Work)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내외 공간에서 액센트를 주고 재미와 흥미를 자아내는 요소가 추후 가미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준층 평면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효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에 맞춘 셀룰러 덕트(Cellular Duct) 시스템을 바닥에 깔고 모듈에 맞춘 조명기구가 앰비언트 라이팅(Ambient Lighting)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부 가구배치는 이러한 모듈과 어긋나 있지만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모듈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다. 기준층 면적이 작고 곡선부가 있어 모듈화되기 곤란한 요소가 많다. 기준층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면 앉은 경우나 선 경우 모두 완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수평창틀이 위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외벽측 천장은 설비를 감추기 위하여 천장마감이 되어 있으나 코어측 천장은 구조체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어떠한 IMF경제위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특이하다.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몇 년이나 지속될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노출콘크리트 마감

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반응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건축주에게 이러한 정립사육을 투어(Tour)시킬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임원실이 위치한 11~12층은 숨통을 틔워주는 절묘한 해결책이다. 좁은 기준층 평면에서 남동측의 두개 층을 뚫어 시원한 조망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뭔가 합리성을 초월한 측면이 나타나는 부분인면서 건축적 특이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문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다. 포스코센터의 임원 층에서도 이러한 복층형 로비가 고층부에 형성되어 있지만 정립사육과 같은 작은 평면에서 이를 관찰시킨 것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용단으로 볼 수 있다. 정립사육 프로젝트가 건축주가 건축가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건축가와 건축주는 엄연히 구분될 수도 있다. 옥상부에 조성된 조경공간은 마치 도심 속의 쌈지 공원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정립사육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업무가 기록

Some twenty years ago, a day at Junglim Architecture started with a discussion on the day's tasks, drinking a cup of coffee, in a room where the Ewha-dong crossroad could be viewed from above. Then we had no paper cup or vending machines, so the coffee we drank was pretty much a genuine one, something the employees of today cannot expect. The office I worked at back in those days, the very place where I first started my architectural practice, was a 5 story building with brown tiles, and the usual work time was from 9 a.m. to 9 p.m.

Recently, I had the chance to visit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Its site remained the same but now it was a tall building with a more impressive view towards down the streets. The panorama of Mt. Bukhan and Naksan, along with that of Daehakro, Changduk Palace and Kyungbok Palace was surely a sight for sore eyes. The headquarter building is a 15 story one, with 6 basement floors, where the 7th to 15th floors are used by Junglim Architecture and Kachi Architects, and others for rent. In the underground floors, we find parking spaces, community facilities, multi-purpose hall and mechanical room.

Its location at the entrance to Daehakro, one of the active cultural regions of Seoul, is, catching the eyes of passing pedestrians, most significant. To the west of the site is a road that is to be broadened to 40m, to the north a 30m-wide road, and to the west and south, 11m and 4m road, respectively. The neighboring area used to be filled with buildings of 5 stories or less, but now high-rises with about 15 stories dominate the view. Within these

된 모범적인 프로젝트이다. 초기의 대지현황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과정을 교과서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다. 중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스케치, 직원의 제안내용, 자금의 수지 분석, 재료 검토, 설비시스템 검토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록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세심한 기록 보존은 건축과정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마지막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주에게도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힘든 노력을 이해시키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비를 합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정립건축사육은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건축프로젝트로 길이 남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실의 사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로의 입구에 위치한 도시경관 측면에서의 상징성과 이를 합리적이고 정렬적으로 해결한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치 흥년에 태어난 아기를 생후 지속적으로 잘 보살펴야 하듯이 극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middle or grand sized architectures, the new headquarter building of Junglim Architecture occupies an important spot in the formation of the overall urban scape. With the City's future plans of Daehakro's expansion, its role becomes all the more crucial.

The architect has answered to the site's urban context with a vertical half-cylinder volume. This provides, to the inside, a clear view towards the north and northwest, and from the outside, a distinct sense of direction at the crossroad junction. It accommodates the linear shape of the site, the northern approaching road, and the arbitrary angles the surrounding roads create. It must have been the designer's primary task to open up, while managing to block the strong sunlight from the west, a wide view towards the north. This was done by positioning the core in the southwest part, thus providing a screen against the dusk sunlight, and from that core, releasing a broad view towards the south. The banal act of walking up or down the staircase can now become a beautiful experience of floating above a grand vista.

The exterior finishings that cover up the vertical volume are, in the general, glass, aluminum sheet and tiles. The curving volume of the northwest is surfaced with double-glass curtain wall, while the west is finished with aluminum sheeting. From the southwest, horizontal windows on the vertical volume can be seen, and from the northwest, the same mass is encased with half-circle windows and aluminum sheets.

It may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rucial

portion of the new office's facade is the northwest one. Comparing an early draft with the realized version, we can see that the roundness of the glass, aluminum sheets and the horizontal aluminum louver of the early phase has changed to those with angles. The final building is also different in that the projection of the facade's layers was discarded. In terms of optimizing cost and production procedure, the polygon shape is an obvious choice. This crisp rationality of this building, however, seems to be in need of a somewhat radical touch.

Had the architect been more passionate to the project, couldn't the primary shape of the cylinder be sustained? The conquering of a seemingly impossible task brings a wonderful sense of achievement to its creator, and endless joy to its observers. The beauty in the perfectly rounded volume with the diversity of the attached facade is manifested in the working model of this project, and now remains us of what sensation it could have delivered if it succeeded in realizing the early intention. The size of the polygon cylinder is rather small to be received as a round piece. It remains, to the eyes of the pedestrians, as an unfinished formal work.

Architect is he who suffers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The early "ideal" form is often subjected to modifications because of harsh conditions. This is the process of designing. From the ideas of the conceptual phase is made a rough outline in the schematic design period, which, while going through the design development phase, becomes compromised by technical and financial limitations. In the production of construction documents, it goes once more through a process of erasure, and finally, in its construction, brings about its finalized, realized form. During these process, which will include a cooperation with engineers, the architect must have a strategy which will decide what to give up and what to maintain. One can wonder what could have been the withstanding end of this particular projec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work of architecture should stand on a rational bases. Reasonable structures and functions are basic necessary conditions for buildings, and a failure to meet these standards often means incompetency. To be thoroughly rational and feasible, however, is not merit. It's just that impractical buildings should be an object of contempt. A true virtue of architecture can be found where the rationality is transcended by a daring heart of passion.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is rational indeed. And portions overcoming reason can be seen in the details of corners and interior spaces.

This building, as its main function is standard office space, lacks in diverse plans. The approach of automobiles and pedestrians is made from the east, from the 11m-wide road. There is also a separate entrance for the rent spaces in the northwest: It connects directly to the underground, where a public space, though obstructed by other buildings in the current condition, is reserved for future use on the occasion of the adjacent road's expansion. The method of placing a large column in the middle of the entrance, as the case of this building's eastern gate, used to be deemed improper, but in

the age of Post Modernism, it was often adopted (Robert Venturi's Guild House for one) in order to manifest the disposal of past disciplines. It may have been a practical result of the overall planning, but its presence is all the more magnified by the use of strong color. The lobby is relatively small in area but opens up to the height of two stories, and its floor and most walls are finished with gypsum boards with coating. The area's absence of an art work, which distinguishes the identity of so many lobbies in the Western buildings, seems to be a natural consequence in the economic condition of a foreign aid, but is a point to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The shape of the plan seeks to obtain the most area out of its site. The cellular duct flooring system, adjusted to the work stations, and the ambient lightings placed according to the modules characterizes its mechanical installations. A few furnitures are out of place from the applied modules, but this system, though a strict establishment was disabled by the relatively small floor area and its bending shapes, has the potential to absorb such variations. The horizontal windows of each floor provides a fine view to both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s. One particular thing about the ceilings could be noted: In contrast to the ceiling near the windows, which are finished with panels, the ceiling at the core's side remains uncovered, revealing structures of exposed concrete. Some refer to it jokingly as a symptom of financial shortcomings, but it surely is an odd touch. As the reception on such 'unfinished' style depends heavily upon each individual's taste, it should be constantly monitored if the visitors and potential clients of Junglim Architecture will appreciate them.

The 11th and 12th floors, reserved for the staff members, also has a special feature. The confined atmosphere from the limited floor spaces is overcome by incorporating the spaces of two floors in the southeast. Such luxurious opening provides a large outlook into the city, and this sort of method, that sign of transcending rationality, is what attracts the building's visitors. A similar space is found in the Posco building, but to achieve such effect within a small floor area requires determination, of both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Though the two, in this case, are presented as Junglim Architecture, members of each group are indeed different.) The roof garden also provides a pleasant rest space for the employees.

The procedure of this project has been completely documented, and provides an exemplary model for such task. Documents and drawings of site analysis, proposals from the members, cost estimation, material and mechanical installation system choosings are recorded and arranged in order. These data, which is a clear proof of the long and laborious process of architectural design, can be used to inform the client of the architect's meaningful role.

The new office of Junglim Architecture will be long remembered as a rational and exemplary project. Not only because it is the headquarters of one of the leading architecture firms of Korea, but because, standing on an important position in an urban context, it succeeds in making symbolic and practical use of its location.